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ISSN 1975-7700

<http://www.kkits.or.kr>

Analysis on Impact of Violence Victimization on Discriminatory Behavior by Mediating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through Structure Equation Modeling

Young-Ki Kim*

Dept. of General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A B S T R A C 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 level of discriminatory behavior to examine the effect of violence victimization on the discriminatory behavior and mediated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n Children Youth Human Rights Survey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inding showed us that violence victimization of children and teenager is no lack. And parents has the largest number of perpetrator, followed by teachers, peers. Verbal violence happens more than physical. And they discriminate against peers by individual reasons as age, grades, gender, appearance than background reasons. Second finding showed that more violence victimization from parent and teacher, peer, the higher discriminatory behavior. Third finding showe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 on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from teachers, peers and discriminatory behavior.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First, we need to regularly and continuously provide parent-education program that parents are fully aware of dangerousness their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on development of their child, Second, influence violence victimization from teachers, peers on discriminatory behavior can decrease as should all filled school and classroom with culture of human rights and by sharing desirable values. And education of human rights should consist of student activity centered than lecture centered.

© 2020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Violence victimization,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of human rights, Discriminatory behavior, Mediating effect

ARTICLE INFO: Received 17 May 2020, Revised 28 May 2020, Accepted 11 June 2020.

*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40 Kangnam-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6979, KOREA.

E-mail address: ykk3422@gmail.com

1. 서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체계를 확립하는 시기이다. 문제는 이 시기에 편견에 대한 신념 등 부정적인 체계까지도 확립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편견과 우월감에 기초하여 또래집단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행동을 한다[1]. UN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청소년 차별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차별은 심각한 상태이다[2]. 이러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차별 가해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폭력과 연관성이 있다. 차별 가해 행동이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연결된다는 개연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모욕, 조롱, 집단따돌림과 같은 언어적·심리적 가해 행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주목해야만 한다. 선행연구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차별피해 경험이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에게 신체적·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차별 가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3,4].

이런 이유로 인해 청소년의 차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5]. 초기의 연구들은 성별, 학교급별,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별 가해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에만 한정되어 있고 차별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차별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심을 두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생태학적 환경인 가정, 학교,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 관계를 정서적 요인인 우울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6,7]. 그러나 이 연구들은 폭력피해 경험과 차별가해 행동 간의 매개요인을 정서적 요인에만 한정시키고 있어 예방적 개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지적 매개요인으로서의 인권 의식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인권의식 및 촉진적 의사소통이 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태도 사이를 매개하는 지를 파악한 연구, 인권의식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지를 분석한 연구 등은 폭력피해와 차별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8], 인권의식이 이 두 변인을 매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수준을 살펴보고 폭력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권의식이 매개할 수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그동안의 전통적인 심리적 개입뿐 아니라 인권 측면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인권에 기반한 예방적 개입 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차별가해 행동의 개념 및 차별의 이유

차별가해 행동은 자신과 다른 개인 및 집단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기초로 타인과 집단을 부당하게 대하는 행동이다[9]. 특히 차별가해 행동은 생각이나 감정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행동으로 나타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차별가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체로 성별, 성적, 연령, 외모 등의 개인적 이유와 가정형편, 출신지역, 부모부재, 다문화가정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로 나눌 수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과 낮은 성적으로 인한 차별, 어린 연령에 대한 차별, 신체조건이나 외모로 인한 차별 등이 차별가해 행동의 개인적

이유로 연구되어 왔다. 또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또래를 차별하거나 회피하는 행동, 다문화 가정의 또래 청소년에 대한 차별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보고도 있다[10.11].

2.2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1 폭력피해 경험

폭력피해 경험은 어떤 피해가 제공되었느냐에 따라 언어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언어적 폭력피해는 부모, 교사, 친구들에 의해 행해지는 놀림, 조롱, 욕설, 비난 등이며,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개인이 갖게 되는 모욕감과 불쾌감, 자존감 상실 등을 의미한다[12]. 또한 폭력피해 경험은 가해자에 따라 부모에 의한 폭력 피해, 교사에 의한 폭력 피해, 친구에 의한 폭력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들의 46.8%는 교사, 21.3%는 학교 친구, 9.1%는 부모를 인권침해 가해자라고 응답한 연구[13]가 이를 증명한다 할 수 있다.

부모에 의한 폭력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대처행동을 학습할 수 없게 만들고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14].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권력은 독점적이므로,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은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사의 모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은 학생들의 관찰대상이 되고 학생들의 모방학습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 양상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 3명 중 1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5명 중 1명은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 친구에 의한 폭력피해 경험은 인권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폭력 가해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16]. 이처럼 학대 및 폭력피해와 폭력가해 행위와의 관련성, 그리고 긴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 효과는 일반긴장이론의 핵심이다.

2.2.2 인권의식

인권의식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이다[17]. 청소년기의 인권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인권의식 형성에 가장 민감한 시기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도덕성 발달과 사회적 이해력이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들은 주요 발달환경인 가정, 교사,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인권관련 경험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지각과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이다[18]. 반대의 논리로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 경험이다. 몇몇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또는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을 덜 허용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폭력으로 인해 초래된 인지적, 정서적 불안전감은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9].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이었으며, 층화다단계집락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target

성별	N(%)	지역 규모	N(%)	학교 유형	N(%)
남	5,448 (52.1)	대도시	4,568 (43.7)	초등학교	2,935 (28.1)
여	5,005 (47.9)	중소도시	4,275 (40.9)	중학교	3,629 (34.7)
계	10,453 (100.0)	읍면지역	1,610 (15.4)	일반/특목/자율고	3,173 (30.4)
		계	10,453 (100.0)	특성화고	716 (6.8)
				계	10,453 (100.0)

3.2 연구변수

폭력피해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 친구로부터의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피해 경험을 묻는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클수록 빈번한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회전된 성분 행렬 결과 및 신뢰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폭력피해 경험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성
Table 2. Factor analysis result and reliability of questions about violence victimization

문항	요인			재명명	신뢰도
	1	2	3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855	.130	.035	부모로 인한 폭력피해	.635
부모로부터 신체적 별	.855	.049	.124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085	.883	.061	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730
교사로부터 신체적 별	.096	.875	.075		
교우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	.107	.126	.830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591
교우로부터 폭행이나 구타	.050	.009	.863		

$\chi^2=10810.145$ (df=15, p=.000) KMO=.571(p=.000)
Variance Explained of 3 factors = 75.6%

인권의식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을 묻는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점수가 클수록 인권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회전된 성분 행렬 결과 및 신뢰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인권의식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성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 and reliability of questions about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문항	요인1	명명	신뢰도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 불인정	.811	인권 의식	.823
의사표현의 자유 인정	.801		
남녀 평등할 권리 인정	.800		
타민족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인정	.743		
정치사회문제에 관심 및 참여 인정	.656		
청소년단체의 문제해결 유용성 인정	.561		

$\chi^2=16060.283$ (df=21, p=.000) KMO=.833(p=.000)
Variance Explained of 1 factors = 45.5%

차별가해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차별 해 본 경험'을 묻는 1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점수가 클수록 빈번하게 차별가해 행동을 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회전된 성분 행렬 결과 및 신뢰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차별가해 행동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성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 and reliability of questions about discriminatory behavior

문항(차별가해 행동을 한 이유)	성분		재명명	신뢰도
	1	2		
연령	.792	.187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763
성적	.785	.177		
성별	.751	.148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887
외모	.667	.243		
다문화가정	.104	.854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887
가정형편	.269	.790		
부모부재	.150	.781		
출신지역	.282	.693		

$\chi^2=41906.662$ (df=45, p=.000) KMO=.900(p=.000)
Variance Explained of 2 factors = 60.9%

3.3 분석방법

먼저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오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기저모형의 적합성과 변수들 간의 경로 관계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SPSS 21.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부모, 교사, 친구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과 차별가해 행동 간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매개경로는 Sobel 검증을 이용하여 산출한 Z값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를 활용하였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함께 활용하였다. 또한 결측치를 고려한 모수추정방법인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각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과 차별가해 경험은 평균적으로 1(전혀 없다)에서 2(1년에 1-2회 정도)의 폭력피해 경험과 차별가해 경험이 있다. 이는 폭력피해 경험률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차별가해 경험률은 폭력피해 경험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배경적 이유보다 연령, 성적, 성별, 외모와 같은 개인적 이유로 차별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잠재변인	측정변인	M(SD)	최소값	최대값
부모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언어폭력	1.51(.93)	1	5
	신체폭력	1.33(.66)	1	5
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언어폭력	1.34(.80)	1	5
	신체폭력	1.35(.79)	1	5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언어폭력	1.26(.73)	1	5
	신체폭력	1.10(.48)	1	5
인권의식	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 불인정	3.54(.64)	1	4
	의사표현의 자유 인정	3.40(.67)	1	4
	남녀 평등할 권리 인정	3.50(.68)	1	4
	타민족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인정	3.36(.76)	1	4
	정치·사회문제에 관심 및 참여 인정	3.03(.74)	1	4
	청소년단체의 문제해결 유용성 인정	2.90(.70)	1	4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다문화가정	1.04(.29)	1	5
	가정형편	1.05(.32)	1	5
	부모부재	1.05(.32)	1	5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출신지역	1.07(.37)	1	5
	연령	1.30(.68)	1	5
	성적	1.33(.73)	1	5
	성별	1.30(.67)	1	5
외모	1.31(.72)	1	5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대다수의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60 이하였으며,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6.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		B			C		D					E			F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493**	1																		
(3)	.203**	.116**	1																	
(4)	.160**	.171**	.575**	1																
(5)	.158**	.166**	.156**	.159**	1															
(6)	.086**	.158**	.086**	.092**	.458**	1														
(7)	-.043**	-.087**	-.054**	-.067**	-.044**	-.078**	1													
(8)	-.024**	-.035**	-.038**	-.059**	-.050**	-.045**	.593**	1												
(9)	-.041**	-.033**	-.078**	-.055**	-.067**	-.064**	.666**	.555**	1											
(10)	-.038**	-.026**	-.069**	-.060**	-.046**	-.052**	.542**	.486**	.572**	1										
(11)	-.009	-.012	-.012	-.037**	-.030**	-.030**	.365**	.476**	.340**	.341**	1									
(12)	-.048**	-.024**	-.070**	-.064**	-.061**	-.054**	.298**	.377**	.283**	.293**	.421**	1								
(13)	.055**	.074**	.102**	.091**	.069**	.093**	-.141**	-.086**	-.121**	-.091**	-.054**	-.045**	1							
(14)	.090**	.098**	.121**	.104**	.108**	.094**	-.135**	-.087**	-.109**	-.082**	-.045**	-.053**	.654**	1						
(15)	.076**	.074**	.119**	.112**	.095**	.075**	-.122**	-.084**	-.112**	-.080**	-.047**	-.039**	.599**	.608**	1					
(16)	.070**	.064**	.128**	.135**	.118**	.096**	-.103**	-.074**	-.123**	-.097**	-.047**	-.057**	.547**	.593**	.483**	1				
(17)	.140**	.130**	.166**	.144**	.157**	.108**	-.038**	-.015	-.038**	-.030**	.000	-.038**	.263**	.358**	.277**	.342**	1			
(18)	.224**	.142**	.243**	.208**	.185**	.090**	.020	-.009	-.021*	-.014	.032**	-.052**	.115**	.172**	.136**	.174**	.304**	1		
(19)	.102**	.103**	.124**	.126**	.130**	.108**	-.071**	-.035**	-.062**	-.061**	-.027**	-.037**	.233**	.308**	.241**	.282**	.514**	.255**	1	
(20)	.128**	.124**	.137**	.121**	.165**	.140**	-.035**	-.019	-.047**	-.035**	-.019	-.046**	.266**	.347**	.272**	.326**	.445**	.279**	.364**	1

(A)부모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1)언어폭력 (2)신체폭력
 (B)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3)언어폭력 (4)신체폭력
 (C)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5)언어폭력 (6)신체폭력
 (D)인권인식: (7)가정형편으로 인한 차별 불인정 (8)의사표현의 자유 인정
 (9)남녀 평등할 권리 인정 (10)타민족에게 평등한 교육기회 인정
 (11)정치·사회문제에 관심 및 참여 인정
 (12)청소년단체의 문제해결 유용성 인정
 (E)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13)다문화가정 (14)가정형편
 (15)부모부재 (16)출신지역
 (F)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17)연령 (18)성적 (19)성별 (20)외모

*p<0.05, **p<0.01, ***p<0.001

4.2 구조모형의 검증

4.2.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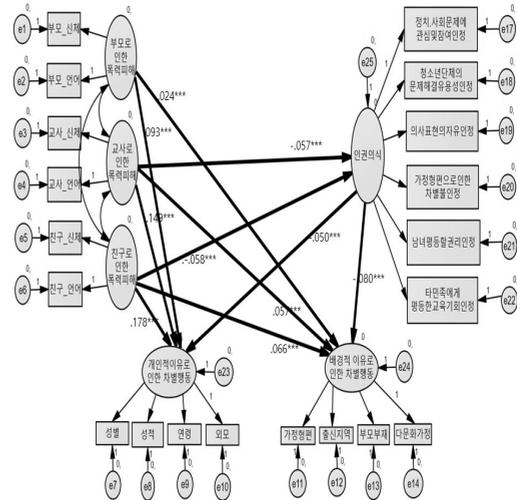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Table 7. Path coefficient of modified model

변수	변수	β	<i>b</i>	S.E.	C.R.
인권의식	←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0.083	-0.058	.010	-5.850 ***
	← 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0.092	-0.057	.008	-6.897 ***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154	.066	.006	10.568 ***
	←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223	.178	.013	13.820 ***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148	.057	.005	11.050 ***
	← 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208	.149	.010	14.374 ***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부모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143	.093	.010	9.447* **
	← 부모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069	.024	.005	4.835* **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인권의식	-0.130	-0.080	.007	-11.428 ***
	← 인권의식	-0.043	-0.050	.013	-3.746 ***

* p<.05 ** p<.01 *** p<.001

연구모형과 모형의 적합도, 경로별 모수추정치는 <표 7>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의식이 낮아지고, 인권의식이 낮으면 배경적 이유와 개

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chi^2=5321.535(df=196, p=.000)$

TLI=.910 CFI=.930 RMSEA=.050

* p<.05 ** p<.01 *** p<.001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Study model

4.2.2 연구모형의 효과분해와 매개효과 분석

직접 및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로 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은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인권의식을 통해 매개효과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과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등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인권의식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Table 8.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between variables

잠재변수	←	잠재변수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효과
인권의식	←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058	-	-.058
인권의식	←	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057	-	-.057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066	.005	.071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178	.003	.181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057	.005	.062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149	.003	.152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부모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093	-	.093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부모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024	-	.024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인권의식	-.080	-	-.080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	인권의식	-.050	-	-.050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Table 9. Test of mediated effects based on Sobel test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			Z	One-tailed probability	Two-tailed probability
교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	인권의식	→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6.05	.000	.000
		→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3.38	.000	.000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 →	인권의식	→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5.17	.000	.000
		→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	3.20	.000	.000

매개효과에 대한 Z값은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므로 교사와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는 인권의식을 매개로 하여 배경적 이유 및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수준을 살펴 보고 폭력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권의식이 매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의 전통적인 심리적 개입뿐 아니라 인권 측면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인권에 기반한 예방적 개입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은 평균적으로 1(전혀 없다)에서 2(1년에 1-2회 정도)로써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반면 차별가해 행동은 폭력피해 경험률보다는 낮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폭력피해의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 많고, 교사, 친구의 순이었고, 신체폭력보다 언어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배경적 이유보다는 연령, 성적, 성별, 외모와 같은 개인적 이유로 차별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권의식은 4점 만점에 2.90~3.54 사이로 나타났으나, '정차·사회문제에 관심 및 참여 인정'과 '청소년단체의 문제해결 유용성 인정'이 다른 구성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 교사,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 경험은 아동 및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다고 주장한 이론 및 선행연구[20]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

다. 또한, 교사,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의식이 낮아지고[21,22], 인권의식이 낮으면 배경적 이유와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선행연구[10]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은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뿐, 인권의식을 통해 매개효과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과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등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배경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인권의식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와 친구로 인한 폭력피해가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인권의식의 매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선행연구[8,15]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으나, 부모로 인한 폭력 피해가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인권의식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부모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배경적 이유와 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 행동이 모두 증가하지만,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것은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가족 내에서 성장한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폭력행동을 모방·학습하게 되고, 미래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폭력행동을 반복한다는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23,24]. 따라서 지속적인 주기적인 부모교육 등을 통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위협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은 인권의식 향상을 통해 차별가해 행동에의 영향력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등 학교에서의 폭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권리기반접근(right-based approach)과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은 인권의식 향상 교육활동을 기획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25]. 즉 인권교육을 강의실에서 수행되는 지식획득 활동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우들과 함께 하는 체험형 활동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교육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차별가해 행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차별가해 행동은 지속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6]. 인권태도와 인권실천은 인권을 존중하는 친인권적 문화 속에서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을 때 함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학급 풍토를 친인권적 교실문화라고 정의하면서, 학생들이 인권 친화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으며, 가치를 공유하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인권의식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27].

그러나 본 연구는 이미 조사·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부모, 교사, 친구의 폭력피해 경험과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시키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다 다양한 맥락과 변인들이 포함된 연구설계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J. R. Cross, and K. L. Fletcher, *Associations of parental and peer characteristics with adolescents'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40, No. 6, pp. 694-706, 2011.
- [2] K. Hong, *Discrimination damage and discrimination behavior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discrimination witness and discrimination sensibility*. Korean Journal of Victimology, Vol. 27, No. 1, pp. 33-65, 2019.
- [3] I. Son, and S. A. Kim, *Systemic review of research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5, No. 1, pp. 26-57, 2015.
- [4] A. Honneth, and T. McCormack,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 22, No. 1, p. 134, 1997.
- [5] K. Jeong, *Impact of the experience of being discriminated on their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ducation for human righ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 55, pp. 31-55, 2016.
- [6] H. A. Kim, *Study on the effect of adolescent violence victimization on discriminatory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9, No. 3, pp. 187-209, 2017.
- [7] S. Park, and J. Glaser. *Implicit motivation to control prejudice and exposure to counterstereotypic instances reduce spontaneous discriminatory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5, No. 4, pp. 107-120, 2011.
- [8] D. A. Lee.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on school violence attitudes: Focusing on mediated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facilitative communica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7, pp.,221-252, 2014.
- [9] E. D. Aronson, T. Wilson, and R. M. Akert. *Social psychology*(6th Ed.), NJ: Pearson Prentice Hall, 2007.
- [10] J. Cheon. *A structural analysis on the youth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Respect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discriminating experiences, and self esteem*.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2, No. 4, pp. 1-23, 2015.
- [11] H. P. Libbey, M. T. Story, D. R. Neumark-Sztainer, and K. N. Boutelle. *Teasing,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morbidities among overweight*, 2008.
- [12] L. Cameron. *Verbal abuse: A proactive approach*. Revolution, Vol. 8, No. 3-4, pp. 76-79, 1998.
- [13] S. A. Jung. *A Study on adolescent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 Focus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Vol. 6, No. 1, pp. 147-169, 2013.
- [14] H. Gazelle and K. D. Rodolph.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Vol. 74, No. 1, pp. 257-278, 2004.
- [15] J. Yeon and C. Kim.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under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chool violence ac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Vol. 30, No. 1, pp. 145-163, 2016.
- [16] B. Hong and Y. Ah. *The influence of human right sensitivity on school violence*

-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3, pp. 307-335, 2012.
- [17] T. E. Jennings. *Self-in-connection as a component of human rights advocacy and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3, No. 3, pp. 285-295, 1994.
- [18] Y. Kim. *Victimization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evaluation on their own human righ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12, pp. 267-280, 2016.
- [19] S. Hong, M. Won, M. Park and J. Mo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bility and school violence attitud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1, No. 3, pp. 43-63, 2014.
- [20] R. L. Akers and G. A. Lee. *A longitudinal test of social learning theory: Adolescent smoking*. Journal of Drug Issues, Vol. 26, No. 2, pp. 317-343, 1996.
- [21] B. Hong and Y. Ah. *The influence of human right sensitivity on school violence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3, pp. 307-335, 2012.
- [22] J. Jeong and J. Jang.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experienced interparental violence, child abuse, sibling violence and perpetration/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5, pp. 179-209, 2017.
- [23] J. Kaufman, and E. Zigler.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7, pp. 186-192, 1987.
- [24] G. Lansdown. *What's the difference? Implications of a child-focus in rights-based programming*. Discussion paper. London: Save the Children UK, 2005.
- [25] D. Kim. *The study on mediation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xperience between discrimination and cultural diversity for undergraduate majoring social work*.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Vol. 14, pp. 195-221, 2013.
- [26] Y. Kim, and G. Park. *The effects of human-rights-friendly classroom culture on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Vol. 21, No. 3, pp. 85-100, 2014.
- [27] M. Lenzi, A. Vieno, D. D. Perkins, M. Santinello, F. J. Elgar, A. Morgan, and S. Mazzardis. *Family affluence, school and neighborhood contexts and adolescents' civic engagement: A cross-na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5, pp. 197-210, 2012.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폭력피해 경험이 인권의식을 매개로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영기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교수

요 약

이 연구는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 수준을 살펴보고 폭력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권의식이 매개할 수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교육적 제언을 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는 주로 부모, 교사, 친구의 순이었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배경적 이유보다는 연령, 성적, 성별, 외모와 같은 개인적 이유로 차별가해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배경적·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권의식의 매개효과는 교사와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과 배경적·개인적 이유로 인한 차별가해행동에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부모교육 등을 통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이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 친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은 학교 내에 친인권적 문화 형성과 바람직한 가치의 공유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체험형 활동 중심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Young-Ki Kim receive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Law from the Myongji University in 2002. He has been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at Kangnam University since 2020.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national security law, industry security law.

E-mail address: ykk3422@gmail.com